

김예림 (성공회대)

1. 들어가며

1937년, “대일본 레코-드 회사 문예부장 이서구”, “조선 권번기생 오은희”, “동양극장 여우 최선화”를 비롯한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는 공개 서한장을 써서 『삼천리』 연구자들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 형성된 자본주의적 삶의 적 욕망과 감각의 현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화 풍속의 “일본제국의 온갖 판도내와 아세아의 문명도시”를 예로 올림픽 대회가 동경에 열”리는데 이제 조선에도 건전 오락이 나와 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텍스트는 문예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읽혀 왔다. 그러나 이 글이 독해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에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상정되어 있거나 직면한 문제들을 읽어보자.

- i) 일본 내지의 동경, 신호, 횡빈를 도라보거나 각가히 대련, 봉천, 신경을 도라보거나 거기에는 모다 흥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부럽기를 마지 아니한다.
- ii) 만일, 그래도 댄스홀을 허락하면 댄스들의 흥을 돋우고 근심하십니까. 그러면 거리거리에 술먹고 주정부리고 공허하였으며 더구나 화류병을 퍼트리고 음란한 풍조를 서 허락하였음니까. 댄스를 하기 때문에 타락한다 하더라도 타락할 사람일 것이외다
- iii) 댄스홀에 가면 한수첩에 5전 10전 하는 턱짓값을 내고 올 것이 아니오리까. 이것이 술 먹고 주정부리고 놀고 있는 데 비하여 얼마나 경제적이고 문화적이오리까.
- iv) 만주사변 직후에 우단(宇担)전총독은 서울 상시에 댄스는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평화의 기상이 세상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위 인용 부분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양상과 관련하여 지 핵심적인 지점들을 제공해준다. 첫째 신체의 총위로

1) 이 글은 역사비평 2005년 겨울호에 게재했던 「전시기획의 미학적 담론」을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근대 풍속 연구 혹은 실증적 자료 복원의 시발점이 되는 『서울의 문화』(김진송, 현실문화연구, 1997)가 이 공개서한장의 제목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건전한 오락”이라는 이념의 문제 셋째, 보다 특수하게는 “평화기”/전시기의 오락의 위상이라는 문제이다. 이 연동하는 문제의 사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체적/정신적 타락이나 퇴폐 혹은 건강이나 건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체와 연관된 오락 영역이 갖는 정치성>이다. 이 두 문제적 지점은 개인 신체를 둘러싸고 작동하는 담론 체계와 그것의 제도화 양상이라는 보다 상위의 논점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땀스홀을 허하라”는 요구는 전시기에는 허용될 수 없었던 지극히 건전한 신체-오락을 허용하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는 개인의 신체와 그것의 오락적 조형 그리고 이 조형틀 자체를 조형하는 시대적 조건, 이렇게 상호 관련된 세 층위로 이루어진 근대적 입방체에 관해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호소문은 단지 많고 많은 근대적 ‘욕망’의 풍속도 가운데 하나로 넓게 읽히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체 ‘취급’의 방법론, 이 방법론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해 고찰할 것을 유도하는 징후적인 자료로 보다 심층적으로 읽혀야 할 것이다. 개인의 신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장소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푸코의 생체 권력Bio-power 개념에 압축되어 있듯이 개인의 신체는 근대 세계의 조절, 통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신체는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가. 이 취급이라는 말에는 여러 복합적인 층위의 신체 조형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신체 조형술을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틀까지 내포되어 있다.

조선에서의 신체 조형술의 안팎을 분석해 들어가기 위해 본고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을 전후한 시기 즉 중일전쟁 발발로부터 태평양전쟁 발발에 이르는 총동원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시기를 논의의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앞서 「서울에 땀스홀을 허하라」를 다시 읽으면서 언급했듯이 전쟁기의 신체 조형술이 “평화기” 신체 조형술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점에서는 “평화기”의 신체 조형술을 연장, 변형, 융용하면서 강화시키는 교묘한 이중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 신체 조형술과 그 이데올로기는 전시기에 자체의 내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변태, 연장, 과잉 노출의 연속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골적인 전쟁 이데올로기가 개개인의 신체를 병사의 신체로 개조하기 위해 갖가지 신체 조형술을 강화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은 중일전쟁을 전후한 조선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감지되는 현상이다. 이에 관한 역사적 규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갖가지 신체 조형술의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역사적 단계에 존재했던 여타의 신체 조형술과 맺는 관계성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들을 관통하여 움직이는 어떤 공통의 신체-정치body-politics 논리의 해명이다. 중일전쟁기로부터 태평양전쟁 발발기에 걸쳐 있는 전시체제 단계는 이렇게 서로 중첩, 강화, 변용되는 신체-정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지점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시에 강화되는 신체-정치의 특정한 측면들은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연계 없이 갑작스럽게 돌출하는 것이 아니며 축적되어 온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재구조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기 조선에서 이러한 재구조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우생학적 신체 상상이라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장소에 논의의 핵심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생학적 신체 상상을 거점으로 위에서 제기했던 복합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성 우생’과 ‘연성 우생’이라는 서로 상응하는 두 개의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생학적 신체 상상은 구체적인 자연과학 지식의 실제적인 동원을 통해 조직되고 작용하지만 동시에 자연과학 지식의 직접적인 운용이라는 레벨을 넘어서 특정한 ‘당위적’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데올로기 레벨에서도 강고하게 작동한다. 조선에서의 우생학적 상상력 역시 근대적 산물로서의 우생학적 상상 체계

라기 보다는 주로 제도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어서 당시의 구체적인 담론 양상이나 일상적 현장성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들 연구에서는 당시 사회적인 위험인자로 거듭 지적되어 온 결핵-성병의 퇴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전시기 신체담론을 규명하고 있어서, 질병 퇴치론과 동시에 진행된 여타의 움직임들을 폭넓게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식민지 주민의 보잘 것 없는 신체와 체력을 병사의 그것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하나가 아니었다. 복수의 방법들은 층위를 달리하면서 고안, 개발되었고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질병의 퇴치는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과제이긴 했지만 함께 '모색'된 여러 정책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생학이 일상생활과 풍속의 영역으로 밀착해 들어왔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지와 퇴치'라는 부정적 방식의 조형술뿐만 아니라 '장려와 조성'이라는 긍정적 방식의 조형술 또한 작용했다는 것 역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가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시기로 범위를 좁혀서 말하자면 전시기의 우생학적 신체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중일전쟁 시작으로부터 태평양 전쟁 발발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의 상황은 제국의 전쟁에 '기여'해야 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선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이 벌어진 공간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시기의 긴장과 그 긴장 속에서 주어진 여유라는 매우 교묘한 이중성을 띠게 된다. 위축, 경화, 과소의 내부에서 확대, 방만, 과잉이라는 또다른 변수의 내부가 주어진 것이었다. 물론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기점으로 이 공간의 복합성은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경색되지만 적어도 중일전쟁 이후의 조선의 풍경을 단색의 어두운 색깔로 동일하게 채색하는 것은 실재했던 양면성과 복잡성을 지워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김남천의 지극히 풍속적인 소설 『사랑의 수족관』의 장면들이 압축하고 있듯이, 이른 바 천막처럼 둘러쳐지기 시작하는 “총동원”의 덮개 밑에서 아직 어느 하나의 형태로 응고되지 않은 채 유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기 조선의 초상에 가까울 듯하다. 전시 체제의 개막과 전시 이데올로기의 유포 그리고 그 속에 여전히 난만하게 벌어져 있는 근대 자본주의 문화와 일상. 이 혼종의 식민지 정황을 신체 조형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표면적으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정황이 서로 어떤 식으로 절합되면서 전반적인 '조율'과 '합의'의 단계를 찾아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점이 전시 조선의 문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이 될 터인데, 여기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서 전세기 신체 조형술과 그 매뉴얼로서의 우생학적 상상의 장을 검토할 것이다.

2. '민족'이라는 거대 신체의 건강 프로젝트

건강한 신체의 중요성이 근대 조선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세기 후반 무렵부터이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양생” 개념이 “위생” 개념으로 전환되고 이에 의거한 근대적인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연구』, 소명출판, 2004 참고. 그리고 근대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건축학적 분석으로는 오종희, 권순정, 「1976-1945년 한국 근대보건의료시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9권 2호, 2003.9. 식민지기 우생학관련 논문으로는, 황병주, 「근대 식민 주체에 아로새겨진 (무)능력의 이중전략」, 『당대비평』, 2003 가을. 그리고 문학텍스트 중심의 신체적 상상력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면수, 「결핵의 수사와 임상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19, 2001; 김현주, 「이광수의 민족 만들기」, 『작가세계』, 2003 여름; 김예림, 「이광수의 예술론과 그 정치적 의미」, 『작가세계』, 2003 여름.

의료시스템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⁶⁾ 근대적 공공언론의 장이 생기면서 위생의 기술과 위생 정책에의 요구가 빈번하게 신문지상에 오른다. 그런데 근대화 초기 위생론의 형태를 빌어 등장한 신체 담론의 맥락은 주로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출되고 있다. 즉 개인 건강의 중요성이라든가, 병원이나 치료기관 설립 및 보급에의 요구라든가, 개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규칙에 대한 훈시라든가, 위생 정책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당시 실시되고 있던 위생관련 사무에 관한 간략한 보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지적들의 근거에는 두 개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아래 인용문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첫째, 조선은 근대화에 뒤처져 있다는 것 그리고 지각 출발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위생개념의 취득이 절박하다는 것 둘째, 개인이 인생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엇지 하면 조선도 기명 진보 하야 세계 상에 기명헌 나라 사람들과 동등이 되야 대조선 국기를 세계에 발양 홀논지 한심코 불쌍헌 인민들은 온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조국 기명하야 우리 대군주 폐하를 모시고 독립 기초를 도울 지어다 만일 나라를 붓들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거던 문명헌 법률을 넓히 보호며 또 군사를 만히 두어 써 도적을 막고 또 위싱국을 각 지방에 비설하야 모든 인성을 구출하논 거시 조출거시어늘(.....)⁷⁾

사람의 사람됨이 시계의 기계와 같으니 박회와 유사와 태엽이 구비헌 중에 한가지만 업셔도 병신이 되야 쓸데업실것이요 사람이 스지 백태와 이목구비 중에 한가지만 병들어도 완전헌 사람이 되지 못홀지라 기계가 각각 더홀 직분을 다헌 연후에 그 시계가 스시주야를 물론하고 운동하야 제 시한을 맞칠것이요 사람도 장부와 기혈이 고른 연후에야 운동과 행위를 임의로 하지 만일 병이 잇스면 세상 만사에 경영을 할 수 잇스리오(.....)⁸⁾

근대화의 척도로서의 위생론, 위생 규칙의 일상화가 갖는 중대성은 이 시기 거듭 강조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의 건강론과 신체론은 주로 위생과 청결이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생산되고 있다.⁹⁾ 위생과 청결을 통해 개인 신체의 내적, 외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하

6) 이에 대해서는 신동원, 앞의 논문; 박윤재, 앞의 논문

7) 『독립신문』, <논설> 1897. 6. 22

8) <론설>, 『독립신문』, 1899. 10. 3

9) 이러한 논지는 다음과 같은 「위생론」(『독립신문』, 1899. 6.21)에서도 나타난다: “넷말에 골오디 작은 불도 끄지 안하면 큰 들을 다 티우고 적은 물도 막지 온하면 큰 강물에 이른다 하엿스니 이는 사람 몸의 질병에도 적당한 격언이로다(.....)그런즉 병이 이러한 후에 의약을 쓰는 것보다 평상에 극진히 마음을 써서 병에 걸리지 아니 함이 곧 위생법이라 그 방법은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요 격 밧과 저물을 쓸 일도 아니요(.....)”. 그리고 「청결에 주의」(『대한매일신보』, 1908. 9. 19)라는 기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똥과 오줌과 쓰러이를 집에 싸아두든지 혹 길가에 버리든지 혹 기천에 냇튼지하면 악취를 발하야 공기를 썩게 하며 악헌병을 나게하논 근본이 되여 귀중한 인명을 허비함이라 그런고로 기명헌 나라 백성은 여러사람의 위싱과 일개인의 위싱을 중히 녀임을 이에서 볼만하바(.....)”. 이밖에 다른 많은 기사들에서도 동일한 입장의 관점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사람의 몸과 기계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 둘째, ‘위생’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모두 포함되고 둘 사이에는

며 나아가 "개명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각종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시의 인식은 전염병 예방이나 수도 사업, 위생규칙의 반포나 의원 설립, 근대적 의학지식이나 의료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현실화된다. 그런데 제도화로서의 위생론과 더불어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생론이라는 것에 주목할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한가지 사실은 "기인(其人)이 민달(敏達)하고 활발하면 기가(基家)의 화락과 기국(基國)에 부강은 不辨可知라 인(人)이 생(生)한 동시에 위생술을 즉지하여야 국여가(國興家)를 보존"할 수 있다는¹⁰⁾ 식의, 집단 주체의 건강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에 '해'를 입히는 부정적 존재들에 대한 인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론/민족론과 위생론의 공고한 결합에 의해 '건강'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특정한 부류는 집단 생존 자체에 위협스러운 존재로 낙인찍히게 되는데 당시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편을 먹는 자"들이었다.¹¹⁾ 이들은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초기의 "내부식민지"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이 지닌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그 흑독함이 비상의 독보다 더하며 그 화됨이 총과 칼의 참악함보다 더한자는 무엇이뇨 아편이 곳 이것이라 비상에 죽든지 총에나 칼에 죽는자는 조국일신만 죽을뿐 아니라 전국인민을 모다 죽게 호는자--라 청국이 압해잇거늘 엇지 경계치아니호리오(.....) 오호라 하늘이느리는 재앙을 인하여 나라를 망히기도하며 전쟁을 인하여 나라를 망히기도하고 정치가 문란함을 인하여 나라를 망히기도 하며 재정이 군간함을 인하여 나라를 망히기도 호거니와 이제 혼조각 독한 약으로 인하여 조국나라를 조국이 망히고져호는 어리석은 자들이여¹²⁾

아편은, "청국"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전체를 멸망케 할 위험인자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국가나 민족의 멸망이라는 것 자체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대상화되었다. 그리고 아편을 먹는 자의 신체와 정신은 '정상적인' 주체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 더욱이 아편을 먹는 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함으로써 퍼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¹³⁾ 위험집단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이들이 갖는 상징적 위험성에 대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셋째, 조선의 위생, 의료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의료시설이나 의학교를 거론하면서 "대한의원"의 여러 문제점과 낙후성을 지적하는 기사는 아주 빈번하게 실린다. 즉 외국에는 나라마다 의회원이 있어서 전문적이고 정밀한 의료가 행해지는 데 비해 "대한 의원들"은 의학교도 없어서 제대로 공부한 경우도 거의 없고 서로 협조하기는커녕 다투면서 사람들의 병을 키운다는 것이다. 셋째 항목의 인용은 『독립신문』, 1899년 10월 3자 「론설」에 따른다.

10) 『서북학회월보』3권 16호, 1906. 12, 15쪽.

11) 이와 관련하여 조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적인 존재 중 하나는 "아편을 먹는 자"이다. 해외와 국내의 아편 관련 소식이나 사건 보도는 신문에 지속적으로 실린다.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잡보, 외보란에 아편 관련 해외 소식이나 국내 소식이 간략하게 실린다. 그 내용을 보면 아편 먹는 자를 경찰서에서 조사한다든가 아편연 방패 죄인을 경무청으로 보낸다든가 하는 기사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대한매일신보에는 생활고나 신병 등으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아편을 먹고 "자폐"하였다는 소식들이 종종 게재된다. 청국(청인)의 아편 판매 문제점과 그 폐단을 말하면서 아편엄금을 강조하는 기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12) 「아편을 먹는자가 증가함을 호탄함」(론설), 『대한매일신보』, 1910. 1.28

13) "그 폐단은 가히 알지라 또 태평한 때라도 아편연 먹는 사람은 얼굴이 슈척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다른 사람의 절반 스럽도 행하지 못하고 또 사람의 슈를 짜르게 하며 그 중에 더욱 이 상한 것은 사람의 흥미를 돕는 것이 술과 궂아야 다른 사람을 권하는 모양이 술잔을 대호것과 궂아서 전염이 대단호지라" (독립신문, 1898. 9. 22)와 같은 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언급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헐적으로 출현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그 충을 두터이 하면서 담론화되어 집단적인 편견과 배제의 기술로서 이용, 유포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조선 전체가 불결하고 거의 모든 조선인이 건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열자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건강한 신체의 육성 프로그램과 더불어 본격 우생학의 형태로 ‘무르익어’ 동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0년대 중후반부터이며 그 완숙기는 193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 본격적인 움직임의 초기적 단계는 식민지 개발 상태로 밀려들어가는 조선에서 그어지고 있던 계층적, 젠더적 내부 분할선을 따라서도 이루어지는 한 편, “민족적 육체 개조 운동”이라는 모토 아래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판타지를 걸고 이루어지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우생학적 상상들의 내면화와 이에 기반한 건강한 민족 신체의 구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다. 집단적 신체의 우량화나 내부 열자들의 범주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920년대 중후반경 조선에서 우생학적 상상들은 이미 낫선 것이 아니었다. 내부 분할선의 획정은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빈민, 범죄자, ‘질환자’ 등 당시의 사회적 계서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내부 식민지 구역을 따라 진행되었다. 의학지식의 보급은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논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잠재적’ 위험 집단이나 범죄 집단을 신체적-정신적 일탈자와 동일시하는 담론들도 발표되곤 했다.¹⁵⁾ 조선 내부의 타자들이 ‘열자’를 중심으로 속속 구획지어지는 가운데, “민족적 건강운동의 대업”의 기치 역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건강의 부족”이 “우리 민족 쇠퇴”의 “과학적”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건강상태로 간다하면 결코 금일 이상의 좋은 조선을 가질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보다 좋은 조선은 조선인의 힘으로만 될 것인 까닭이고 그 힘의 근원은 조선인의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라는 인식은 공고화 된다. “민족적 육체개조운동”에의 요구는 “우리는 무섭은 자각과 무섭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적 육체의 개조에 시급히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大要를 말하면 個人保健, 民衆保健의 두 문제로 分할 것입니다. 민중보건 문제 중에는 아동위생, 영양위생, 性生活, 오락, 휴식, 흡연, 음주, 公衆위생 등의 문제입니다”¹⁶⁾라는 구체적인 실행 촉구의 목소리로 이어진다.

실제로 조선에서 “우생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매체에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초반이다. 이미 19세기 말엽부터 민족/국가 만들기라는 구조적 작업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던 우생학적 상상들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념적 언표화 계기를 얻게 된 것이다. 이는 보다 광의의, 심층의 인식들이 특수한 전문 용어/영역의 수용과 수입을 통해 초점화되어 표출, 유통되기에 이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21년 8월 1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7월 27일 정주에서 열린 제 2회 학우회 순회강연에서 <우생학의 주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3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우생학 관련 강연의 규모는 매우 커지

14) 여기에는 근대 의료체계의 복잡화와 의학, 생물학 지식을 포함한 과학지식 체계의 전문화와 일상화라는 현실적 조건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예림,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 앞의 책 참고

15) 의학지식의 일반적 보급이나 ‘상식화’ 경향은 이 시기 대중 종합잡지의 기사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범죄-의학지식 결합형태의 기사도 실리는데 주로 범죄자나 범죄집단의 신체적 결함을 문제삼는다. 이와 같은 관점은 비정상적 질병의 소유자가 사회적 일탈자가 된다는 명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16) 『동광』, 1926. 5.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처럼 우생학은 1920년대 초 대중 계몽 강연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하는 ‘새롭거나 중요한’ 신개념이었으며, 적어도 ‘의식적으로’ 재발견, 재선전되어야 할 영역으로 또렷하게 돌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30년대 초반 이후 조선은 우생학적 상상들의 번성지가 된다. 경성보건운동사에서 『보건운동』이 발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 번성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는 바로 1933년 조선우생협회의 출현이다. 우생학 담론이나 관련 기획의 내용도 보다 전문화, 분화되어 세계 우생운동에 대한 소개¹⁸⁾, 화류병의 위험성과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 유전 관련 논의들, 결혼과 임신과 태교의 생물학적 중요성, 산아제한 문제 등이 거듭거듭 논의된다. 조선우생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대중강연 등의 사업을 하면서 1934년 9월 『우생』 1호를, 1년 뒤인 1935년 9월에 『우생』 2호를 발간한다. “全世界나 一民族을 무를것업시 그 盛衰消長이 오직 그 圈裏各分子의 優良함과 薄劣함이 실로 그 本함잇”는 시대에 優生學的智識의 “攝取”와 “後承”의 “善導”라는 “急務”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우생협회는 회장 윤치호를 비롯하여 여운형, 유억겸, 주요한, 최두선, 김성수, 이광수, 현상윤 등 총 84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었고 강연회, 토론회, 좌담회의 개최, 간행물 발간, 아동보건 및 결핵의 학 상담 등을 중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¹⁹⁾ 1935년을 넘어서면서 조선우생협회의 활동에 대

17)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생학 관련 대중강연은 종종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1930년대 초반 이후로는 <조선우생협회>가 주최한 “우생문제대강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한다. 특히 동아일보 학예부는 조선우생협회 주최 우생강연회를 후원한 경우가 많다.

18) 특히 독일의 우생 정책은 선진적인 케이스로 종종 언급되고, 일본쪽의 움직임 역시 단신으로 보도된다.

19) 『우생』 1호에 게재된 「조선우생협회기사」 35-7쪽 참고.

잠시 1930년대 초에 만개한 산아제한론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자. 1930년대 초반의 산아제한론은 조선 내부의 계급적 열자들 즉 빈곤층의 확산에 대한 집단적 공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하층민의 ‘대를 이은’ 열등성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논리하에서 비민층의 산아제한이 주장되었다: “더구나 이러케 멧업시 작고 배어서 낳는 그 자식들이 엇더케 되느냐 하면 대개는 룽칠남매 잇다면 중에 두너가 부족하다든지 육체적으로 모자라는 자녀가 한들이 만드시 끼우게 되고 그러치 안으면 전체적으로 룽칠남매 전부가 지극히 평범한 범인(凡人)들이 되고마는 터이외다. 이것은 오늘의 우생학자들이 렬렬히 부르짖는 말이 아니오닛까.이 밧게 또 한가지 리유는 대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살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두룩하게 낳는 그 자녀들을 영양이 충분하게 양육을 식히지 못하고 게다가 교육까지 골고로 식힐 수 업게 되니 이 한가지 리유만으로도 하로 급히 산아제한을 실시하는 일이 조흔 줄 압니다. (朴晸辰, 「産母保護와 人種改良方面」, 『삼천리』, 1930.4) 그 외, 「우생운동과 산아제한」, 『동아일보』, 1933.5.7; 유상규, 「우생학상으로 본 산아제한」, 『우생』2, 1935. 9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1931년 6월, 잡지 『삼천리』에는 “혈족결혼”에 대한 논의들도 실린다. 이 역시 우생학적 관점에서 논의되거나 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칠성의 「난륜과 연애자유문제」, 허영숙의 「종족저하와 풍기상으로 반대」, 박창훈의 「우생학상으로 반대」 총 4편의 글이 실리는데, 전체적으로 혈족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생학상으로 반대”하는 박창훈의 요점은 첫째, 혈족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나는 어린 아이가 키가 적고 몸집이 가늘고 선천적으로 기력이 약하다는 것, 둘째, 이해력과 기억력 등이 박약하여 저능아가 많다는 것이다. “혈족결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민과 유입 등을 통해 실제로 조선과 조선인이 문화적-혈족적 혼종의 장에 완전히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혼종의 장에 대한 “생물학적”, “종족적” 파악은 공통적으로 역시 빈민-열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를 생산하는 쪽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혼종결혼과 관련해서도, 외국에 유학한 엘리트층의 ‘혈족결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社會學上으로 본다 하여도 國家의 安全함이든지 家庭의 平和스러운 것이 人口收量에 있지 아니하고 氣品과 質에 잇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一社會에 不良分子인 殺人, 強盜, 射技, 浮浪, 狂人, 淫亂, 不具者 등이 만홀것갓흐면 第一로 經濟上 不利할 것은 勿論이고

한 보도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이 사실이 우생학적 담론의 실종이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절대 아니다. 이후의 우생학적 담론의 일상화, 대중화는 1940년 전후까지 속간되는 『조광』이나 『삼천리』와 같은 종합대중잡지나 『과학조선』과 같은 전문잡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야흐로 식민지 조선의 개인과 집단들은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으로 코팅된 우생의 문화정치 필름에 속속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우생학의 서터는 근대 조선 내부의 곳곳을 찍으면서 우와 열의 ‘과학적’ 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건강한 민족신체의 구상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3. 전시 우생학과 신체 오락의 문화정치

1) 강화되는 열자 말소론과 위생론

앞절에서는 조선에서 우생학적 상상들이 지퍼지기 시작하여 점차 열기를 더하며 절정에 오르기까지의 정황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앞에서 경성 우생학과 연성 우생학이라는 대쌍 개념을 설정하고 있음을 언급했었다. 경성 우생학과 연성 우생학은 우생학적 상상들의 내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경성 우생학의 맨 끝쪽에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열성 퇴치론이 위치해 있다면 연성 우생학의 맨 끝쪽에는 변형되고 유화된 우성 정책론이 위치해 있다. 경성 우생학과 연성 우생학을 잇는 연속-변화의 스펙트럼 속에 다양한 생활 위생론이나 보건 기술, 질병 치료법(특히 성병과 결핵)이나 예방론, 배우자 선택법, 태교법, 성지식과 성교육 등등이 연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성 우생학의 극단을 단종법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와 가장 멀리 위치해 있는 연성 우생학의 극단을 신체‘오락’으로 놓고자 하며 이 두 극점이 우생학적 상상들이 총체적으로 비대해지는 전시에 어떤 식으로 역할 배당을 받게 되는가 하는 점을 살피고자 한다. 지금까지 전시의 우생학 강화에 대해서는 단종법과 신체오락 사이의 여러 중간 정책, 제도,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경성 우생의 극점인 단종법이 특수한 문제적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열성퇴치론을 도모하는 제한적이지만 매우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이 선을 벗어나 점점 연성 우생학 쪽으로 이동할수록 일상화된 우생학의 제 형식들은 보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생학이 (유사)과학으로부터 제도-일상문화로 코드전환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은 제국 일본의 인간 병기 창고로 ‘육성’되는 전시 신체 개발 단계로 편입되어 들어간다. 이 시기에 우생학의 스펙트럼 전영역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시의 제국이 각종 생체 정치 기술을 강도 높게 발휘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와 정책들은 조선에도 이식된다. 일본의 의료 파시즘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후지노 유타카는 15년 전쟁기간을 만주를 포함한 중국대륙이나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점령을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라는 국가의사가 일관되게 관철된 시기로 보면서 이 시기 일본에서의 의료가 어떤 식으로 파시즘을 추진했는가 하는 점을 정책사적으로 밝혀낸 바 있

治安上 發展上에 重大한 問題일 것은 明確하다(.....) 그 對策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優生운동 즉 社會에 害를 주는 不具의 遺傳病者, 不良分子들을 出産分枝 못하도록 根本的으로 防止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유포된 시기임을 생각할 때 문제의 초점이 언제나 빈민-열자에게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인용은 이명혁, 「생물학상으로 본 우생학」, 『우생』1, 1934. 9., 2쪽. 식민지시기 산아제한론에 대한 연구로는 소현숙, 「일제식민지 시기 조선의 출산통제담론의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0 참고

다. 그에 따르면 1920년대 일본에서는 이른바 “민족위생”론이 보급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1925년에는 국제연맹 주최 각국위생기술관 교환시찰회가 열리는 등 일본의 위생정책과 의료정책은 이 즈음에 ‘예방’, ‘방지’, ‘영양’, ‘위생’, ‘건강상태’라는 일상적인 생활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국민 체위 향상”의 단계로 나아간다.²⁰⁾ 이후 1938년 전시 국민

~~의 체위 향상이라는 국민체위 제정하고, 일본 후생성의 설립된다. 21) 후생성의 건립하는 제국~~

신체조형 공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후생성의 탄생과 이것이 추진한 “국민체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사업은 “국민우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서도 환영받았다. 특히 강성 우생학의 극점에 해당하는 단종법은 “근대의 전쟁은 인종으로만 승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열자의 완전 박멸을 위한 가장 적절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厚生省이 成立되어 今後の 國民體位 向上을 目的으로 여러 事業이 *기되는 이 斷種法도 試行케 되어서 國民優化에 根本問題를 解決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人口의 増加는 國家의 繁榮이라구 欣善할 수 있으나 實際問題에 있어서는 國家의 人口의 양으로만 問題될 것이 아니고 質이 더욱 要求될 것이다(.....)帝國의 社示하면 人口增加率 幼兒死亡率이 世界에 第一이고 不具者 혹은 遺傳的 疾病이 世界 第一 結核 梅毒患者의 數 酒毒中毒者の 數도 世界 第一이고 犯罪者の 數年 増加하며 感化院의 受容을 要하는 不良少年도 年年増加의 傾向을 보인다. 國民의 増加는 國家의 繁榮이라고 安心할 수 없는 것이다. 近代의 戰爭은 人類數로만 勝戰함은 아님을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優良한 國民이

의 위생정책과 “민족위생”론의 전개에 대한 위의 논의는, 후지노 유타카(藤野豊), 『日本の誕生』, かもがわ出版, 2003, 1장 참고. 이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국민들에게도 “위생”론이 보급된다. 그리고 1925년 6월 내무성 위생국이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의 위생기술관을 조직하여 <일본 공중보건협회>를 설립한다. 한편, 15년 전쟁기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의료정책 가운데 중요한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31년, <나예방에 관한 건>을 <나예방법>으로 개정하고 모든 한센병환자를 격리하여 제로 격리정책이 강화. 1932년, 소화공황 대책으로서 시국구의료구호 사업(빈곤층, 대상 의료 확대)이 개시되는데 이것은 1936년까지 지속되고 1937년 이후 종합적인 체력강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1937년, 전면적 침략전쟁으로 돌입하면서 모자보건 건소법 등이 실시되고 결핵예방법이 개정된다. 1938년, 후생성 설치에 이어 국민건법이 성립되고 중국에서 귀환하는 장병들에 의해 성감염증이 만연할거라는 예상하 <류병예방법>의 제2, 3조가 시행된다. 1939년 후생성체력국 산하 제1회 체력장검정 실시하여 15세--25세 남성(1943년부터는 15세--21세 여성에게도 확대 실시)을 대상 체력검정을 하여, 그 성적을 체력장에 기재, 징병검사, 점호, 입학시험, 취직시험에 명으로 삼았다. 1940년 후생성에 설치된 국민체력심의회가 원안을 작성한 <국민우 <국민체력법>이 성립된다. 1942년, 국민의료법에 의거, 일본의료단이 설치되고 “체제”가 주장된다. 그리고 1934년에 자연보호, 해외 관광객 유치, 국민보건 등을 목적으로 탄생한 국립공원이 “건민지”로 개칭되면서 군사훈련의 장으로 화한다. 또 결핵, 중 예방이나 모자보건 등을 주로 한 건민운동도 개시된다.

년, 청년남녀에게 결핵이 만연하고 있어서 병력이 저하되고 차세대 인구가 감소된 이유로 체력강화를 위한 위생행정의 전문성 설치가 요구되고 그 구성이 구체화된 뒤 1937년에 후생성 설치로 이 계획은 실현되는데 후생성은 지금까지의 내무성 위생국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을 통합한 새로운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력 강화에 중점 위생 행정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조직한 기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지노 유타카의 책 참고

의 거대한 위 향상을 조선에서 간의 두수 방법으로

이제 중에 다. 人 幣榮은 會相을 많은 數도 如此한 間의

20) 일본의 厚生省 “민족위생” 관동정 동원과 다. 1937년 단종법은 농민층 인 국민법, 모자강보법에 <화도를 수으로 체력증생법>, 의료신적으로 성감염

21) 1936년 다는 다. 25을 중을 둔카, 위

많은 것을 要求하는 時代이다. 이제 國民의 心身을 憂化함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을 것이다. 例하여 말하자면 科學知識普及 結婚의 改良及 社會 制度의 改良 등은 主히 高潮하나 이는 다 根本적으로 解決될 수 없는 方法이다. 그러다고 없어야 될 것은 아니다. 실제로 國民이 惡劣質 所有者가 없어지는 그날에야 國民의 優化는 實現될 것이다. 이 根本 方法은 斷種法 이상의 것은 現時에는 찾지 못할 것이다.²²⁾

후생성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전시 인력 증강 정책이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의 공포 속에서 적극 개진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전시의 강성 우생학이 열자의 ‘떨종’을 기도하는 사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는 대규모의 생활 우생학 역시 만개하고 있었다. 이 생활 우생학은 전 시기와 동일하게 그러나 더 강도 높게 결핵 및 화류병에 대한 예방, 치료 지식을 제공하고 도시적 문명병으로서의 이 위험한 질병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²³⁾ 전시 연성 우생학의 위생론이나 예방론 등이 각종 정책 강화와 연동하여 보장되고 있었다면, 연성 우생학의 가장 소프트한 지점인 스포츠-신체오락의 영역은 어떤 식으로 재편되거나 활용되고 있었을까. 이 문제는 우생학적 상상들이 오락의 형식으로 변형, 조정되는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의 체제 재편과 오락의 ‘취급’이라는 문

22) 김홍선, 「단종법안에 대한 비판--국민 우화(優化)의 근본책으로의 법안」, 『조광』, 1933.4. 단종법은 1933-4년경, 조선에 나치스 우생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되면서 간헐적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나치스의 괴법령 남녀간제결종법 명년 일월부터 실시」, 『동아일보』, 1933. 12. 24. 그리고 이갑수, 「세계적 우생운동」, 『우생』1, 1934. 9; 「독일유전병방지법」(독일 관보발표문의 유전병방지법 번역), 『우생』, 1934. 9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38년 1월에 후생성 산하 예방국에 우생과가 설치된다. 우생과의 주관업무는 ‘민족위생’, ‘정신병’, ‘만성중독’, ‘만성병’, ‘화류병’ ‘나(癩)’ 등이었다. 그리고 1940년 5월 1일자 법률 제 107호 <국민우생법>이 발표된다. 이 법안은 “악질 유전성 질환의 소질을 가진 자의 증가를 방지하고 공동의 건전한 소질을 가진 자의 증가를 도모하여 국민소질의 향상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전성 정신병자, 유전성 정신박약자, 악질의 유전성 병적 성격 소유자, 유전성 신체질환이나 기형을 가진 자 등의 단종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원문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률 저하와 전쟁으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악질 유전성 질환 소질을 가진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병자”의 수도 많아지는 등 열질 소유자들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열질 소유자의 증가를 막기 위한 우생수술의 구체적인 정책과 “건전자의 산아제한 사상을 타파”하자는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원문 인용과 참고는 『國民優生法概說』(후생성예방국, 소화15년 6월)에 따랐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松原洋子, 「戰後の優生保護法という名の斷種法」, 米本昌平의 편, 앞의 책, 175-183쪽 참조

23) 전운이 짚어지면서는 일본에서는 인구감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한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선의 김마루는 매우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 인구증가에 열리. 반면에선 전운이

한국의 문명생활의 고도로 인한 과잉한 출생률의 결과로 인하여 “인적(人種)의 질(質)을 향상(提昇)할 수 없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것을 생활(生活)의 질(質)을 다하고 문화정도가 열다를 이것을 다하고 이것(그리고) “제1의 과제로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건장해를 강화하고 인적(人種)의 질(質)을 향상(提昇)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인용은 최화영, 「서당불의 힘」, 1941. 7. 그 외 이 글과 동일한 <과학부대의 지원> 환에 실린 최 화영, 「서당불의 힘」(上), 역시 최화영과 결핵환자 나동 등의 결핵치료가 시급한 때임을 밝히면서 결이 나날이 저하되어가는 것”을 지적한다. 총독원기 일본의 대조선 정책이나 총독 중 질병, 위생, 영양, 체육정책, 국민대책 등과 신체본의 이데올로기는 당시 총독부의 정책기록, 국민생활논총, 전시국민독본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http://210.101.116.181/japan/>> 참조.

제로 표현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러한 문제적 지점들은 전쟁기 오락화된 생체 정치의 총위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 테크놀로지로서의 오락정책과 유희하는 병기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산 신체 병기는 일상화된 연성 우생학의 장에서 어떤 식으로 제조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 절에서 다룰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선택한 연성 우생학의 지점은 향유와 유희라는 판타지 속에서 ‘즐겁게’ 병사의 신체로 변신하도록 유도하는 신체 오락의 장이다. 이것은 전시의 연성 우생학 가운데서도 가장 말랑말랑한 지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통제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도 역시 어떤 잉여나 과잉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잉여나 과잉은 물론 조용히 통제되고 있거나 조정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교묘한 이중성을 묻는 일은 곧 전시는 왜 오락을 요구하는가를 묻는 일과 만나며 더불어 전시의 오락은 결국 어떠한 신체 조형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는 일과도 만난다. 이 문제를 조선이 놓여있던 맥락에서 검토하자면 우선 중일전쟁 이후 적어도 조선이라는 ‘물리적’ 영토는 피흘리는 전장터가 아니었다는 상황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전쟁의 무드는 조선 전체에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퍼지고 있었고, 인간 병기 생산 벨트 또한 제국에서 내려온 제조법에 의거 계속 가동 중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에서도 다음과 같이 인지되고 있었다.

이른바 전쟁이다! 비상시다! 하고 消燈法을 배우고 午砲를 停止하며 떠든다 하드래도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피흘리는 군인이 보이지 안코 공중에서 폭탄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지 못한 일반 우리 국민은 아즉도 歐洲전쟁 당시에 비하여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즉까지 이와 같은 쓰라린 맛은 다행히 모른다 할 지라도 결코 여기서 안심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²⁴⁾

24) 황신덕, 「비상시국과 가정 경제」, 『삼천리』, 1938. 8

25) 이건혁, 「물자동원과 국민생활」, 『조광』, 1938. 8

는데, 이처럼 문화적 신체 훈련의 정치성을 해명하는 관점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²⁶⁾ 당시 조선에서의 전시 신체 오락 정책이 어떤 식으로 조정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앞선 시기에 제출되었던 오락, 스포츠 관련 신체 담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취미와 여가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근대화되어 가던 조선에서 “취미”의 근대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이다. 취미론을 들고 나오면서 조선의 “빈취미증”이 문제적인 현상으로 지적된 것은 『별건곤』의 시대가 열리면서였다. 『별건곤』은 취향과 향유와 취미의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나온 매체이자,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등장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노동자층이 급증하고 두터운 빈민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민지 내부 분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현실에 대한 계급론적 관점이 확대되면서, 1920년대에는 취미와 오락의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되었다. 즉, 가난한 조선은 전반적으로 일차 노동 아닌 여가 개념이 성립될 처지가 못되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문화 시설들마저 철저하게 계급적이어서 따지고 보면 소수 집단의 향유물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다. 오락으로부터의 노동층의 소외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노동자층을 비롯한 빈한한 대중의 형성, ‘취미’의 발견과 더불어 인식된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우리 조선에 활동사진관이 몇 개지만 그것이 노농대중에게 무슨 위안을 주었스며 무도, 음악이 유행하지만 그것이 또한 노농대중에게 무슨 취미가 되었느냐? 박물관, 동물원, 공원, 극장이 다 그러하다. 그것은 다 일부 인사의 독점적 향락 기관이 되고 마랐다.(.....) 화류계에 출입하며 歌舞고*와 주지육림에 흥겨워 노는 것을 위안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업는 사람은 천만부당한 일, 등산, 기차, 여행 등을 취미로 아는 사람도 잇스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잇고 그것이 못되는 사람도 만타하면 민중적 취미는 못될 것이다. 온천, 약수도 또한 그러하다. 빼이오린, 만또린, 오루간, 피아노를 가취놋코 사이사이 한 곡조 울리는 것을 유일한 취미로 아는 신사숙녀가 잇지만 그는 더욱 유산계급의 향락소위이고 大衆의 취미는 못될 것이다.”²⁷⁾ 특수한 계급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는 대중 오락의 하나였던 “스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시합 한번이 열리게 되면 신문의 반면은 그 기사로 채우게 되고 어의서 던지 권내에서든지 관청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카페에서까지라도 화제가 되는 -참으로 운동문화의 현실- 엇더케 되는 셈판인지? 무엇에 세계기록을 지었느니 무엇에 세계선수권을 엇뎠느니 하는 기사가 날마다 이 현상에서 새 문화를 멘드러 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자유로이 운동을 하게 될 수가 잇고, 하로에 세 시간씩 어느 공공한 처소에 가서 가장 유쾌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무슨 운동이나 할 수가 잇게되고 세계적 선수권 대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거저-아모나 구경하게 될 수가 잇고 갖치 질기게 될 때가 올 것 갖흐면 그때 가서는 누구나 다 넷날르의-야구 구경 한번에 대매일원을 주고 구경한 일이 있다는 것이 꿈과 갖치 생각이 되리라”²⁸⁾.

26) 관련논문은 高岡裕之, 「總力戰と都市」, 『日本史研究』415, 1997. 3; 「觀光, 厚生, 旅行-ファシズム期のツーリズム」, 赤澤史朗 외 편, 『文化とファシズム』, 1993. 그 외 「醫療新體制運動の成立」, 『日本史研究』424, 1997. 12이 있다.

27) 벽타, 「빈취미증만성의 조선인」, 『별건곤』, 1926. 11

28) 승일, 「라디오. 스포트. 키네마」, 『별건곤』, 1926. 12. 스포츠에 대한 비판은 주로 스포츠의 상업주의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스포츠 역시 ‘우리 모두’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집단의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오락은 “유한계급의 전유물”²⁹⁾이라는 인식 그리고 오락의 대중화에 대한 인식은 이후 193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서도 함께 연동하여 제기되었는데 특히 이 즈음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흐름은 오락의 대중화 문제가 계급적 소외의 반영물이라는 쪽으로 담론화되기 보다는 이른바 집단적 조절이나 정책화의 대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물론 대중성이라는 계기가 중요하게 개입되어 있다. 대중성이라는 것에도 따지고 들어가자면 오락의 보편화, 보편화에 따른 향유 주체의 타락 가능성, 이에 따른 질적 제고의 필요성 등 연쇄적인 고리가 내재되어 있다. 건전한 오락/건전하지 못한 오락에 대한 구분 그리고 전자의 진흥과 후자의 척결이 “민족적 원기진작의 중대요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³⁰⁾

朝鮮의 都會와 農村을 한갈같이 파고들어가는 毒蟲은 麻雀에 限할 것이 아니다. 낚은 熟語로 酒色雜技 그 어느 것이나 朝鮮의 膏血을 빨아먹지 않는 것이 없다. 金錢을 빼앗아가고 健康을 빼앗아가고 元氣를 빼앗아가고 意志力을 빼앗아가고 感激性을 빼앗아가고 冒險心을 빼앗아가는 이 毒蟲을 除去하는 것이 우리의 큰 싸움의 하나가 아니될 수 없다. 娛樂의 淨化, 娛樂의 社會化는 모든 階級을 通하여 모든 時代를 通하여 人類社會의 一大問題가 되어가지고 있다(.....). 오늘날 朝鮮의 青年은 그 娛樂에 대하여 指導機關의 缺乏을 느끼는 것이 事實이다. 農村의 農閑期에는 非衛生이 極한 온돌사랑에서의 吸煙, 雜談, 賭博으로 虛送되고 都市의 青年은 카페의 등불이 表徵하는 頹廢的 生活과 麻雀看板이 廣告하는 無爲的 時間의 浪費로 그 生活力을 暗殺당하고 만다.³¹⁾

이어 세계 각국이 “각각 그 입장은 다르다 하나 국민의 원기를 보하고 사회의 원동력을 충

충실, 스포츠의 장려, 도서관의

설립, 활동사진의 이용, 야외생활의 추천 등등”을 추진하고 있던 대중오락과 건전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국제적인’ 상황이었다. “청년아 광활한 대지에 뛰어나가 일광을 찬미하라. 술잔과 흡을 만지자. 차라리 라켓트와 배트를 들자. 모든 교육기관, 청년교육과 사교에 대한 지도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³²⁾는 대

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처럼 서 조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골*을 만지는 손으로 풀넙과 년단체, 노농단체는 체육과 교책이 나온다.

설정(건전/퇴폐론)이 공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야외에서 체육의 영역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부각되기에 이른다. 초반은, “문약하고 침체하고 위축되어 가는 현실의 조선에 있는 중에게 체육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민중보건체육”을 개발하라는 진단³³⁾ 하에서 “민중보건”의 이름으로 보건 관련 조직들 규모로 기획된 시기이다. 그 목적으로 거론된 것은 청년의 사기

오락의 공유와 그 방향 “라켓트와 배트”를 드는 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30년대 들어서 선수 양정보다는 “전민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의 체육 대중화 정책들이 대

의 변천경향], 『동아일보』, 1930. 4. 6.
논의가 강화된 직접적인 물리적 조건으로 만주사변이라는 준전주사변 관련 오락 금지나 정지 기사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아일보』, 1931. 11

보편화의 금무’, 『삼천리』, 1932. 3

29) 「유한계급의 전유물, 오락」
30) 1930년대 초반에 이러한 시 상황 역시 들 수 있다. 만
31) 「오락의 건전화 사회화」,
32) 위의 글
33) 김보영, 「민중보건과 체육

진작, 민중에게 강건의 기풍 양성, 협동단결의 훈련 등으로, 모두 “민족 보건”이라는 가치에 그 채널이 맞춰져 있었다. “민족보건의 근거는 소극적인 질병의 예방과 치료 또는 양생법에 있지않고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일반민족의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각자가 소유한 바 건강을 더욱 건강케 하는 데”³⁴⁾ 있다. “1931년으로 비롯하여 금년 신춘에 들면서 조선민중보건에 관한 여론이 높아가는 동시에 이에 대한 수삼기관(數三機關)까지 발생함을 보게 된 것은 매우 경하할 현상”이며 “중앙체육연구회 등의 유지가 선두에 나서 보건체조라든지 민중체조단의 조직등 체육의 민중화에 힘쓰는 한편 우리 보건운동사로써의 유지 간행 강좌개최등과 합작되어 1932년은 확실히 조선민중보건운동의 선전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³⁵⁾는 자체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민중체육 보편화”의 논리는 일상의 개개인의 신체를 보건과 오락 양자가 정확히 접합하는 지점에 가져다 놓는다. 이것은 상식과 운동으로서의 보건위생 영역과 취미와 놀이로서의 운동(스포츠) 영역이 건전오락이라는 혼종물로 교묘하게 중첩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건전오락이라는 정책적 가치가 중일전쟁 이후의 전시 체제에도 고스란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조차 여전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다양한 ‘에로-그로’ 문화의 정화를 위해서도 적극 장려되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가총동원법이 발동되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는 등 총동원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고 이것이 “문화부문 통제에로 전환”되면서 “전시엔 취미오락도 개선”³⁶⁾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만연했던 1938년 “비상시국”의 시절에도, 조선의 출판계의 경우 “시국물 극소수”에 “특수한 오락물은 증가되었”다는 진단과 “앞으로 이 방면 것은 더할 것”³⁷⁾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조선의 오락 양태는 ‘건전치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지나치게 향락적이다’라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자기 점검은 늘 상존했다: “그때마다(서울에 갈 때마다--인용자) 느낀 것은 사람들 사이에 대단히 향락적 기분이 농후해지고 영화 연극 팬이 부쩍 늘고 다방이니 ‘그릴’이니 ‘바-’니 하는 것이 거이 전성을 극하고 요리집이 엄청나게 흥성흥성하다는 것이다. 살림 형편들이 좋아진 때문인가? 전쟁경기, 광산 경기의 덕분인가?(.....) 내가 가장 관심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향락적 기분이 농후한 것 같은 그 점이다”³⁸⁾

건전오락론은 1938년경부터 여러 영역에 걸쳐 유포되어 1942, 3년에 이르기까지 문화정책론, 원론의 형태에서부터 실내악단의 연주 기사를 비롯한 공연 보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이 시기의 건전오락론에는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대중 소비 영역이 포괄되어 있지만 특히 신체오락-운동 부분은 총체적인 ‘정신개조’라는 당면한 급선무와 관련하여 결정적이며 중요한 지점으로 등장한다. “경기선수중심에서 체력증진운동”으로의 전환은 “건전한 오락으로서의 운동”³⁹⁾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는데 얼마 안가 이것은 “오락을 전투력증강에로 개편”하는 장기적인 국방체육화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⁴⁰⁾ 일본의 경우 이러한 양

34) 진번, 「민족보건과 체육장려(一)」, 『삼천리』14, 1931. 4

35) 양봉근, 「조선민중보건운동의 방략」, 『삼천리』, 1932. 3

36) 『동아일보』, 1938. 12. 10

37) 『동아일보』, 1938. 12. 24

38) 이석훈, 「지식인의 연애」, 『삼천리』, 1940. 3, 322쪽. 그는 이어서 우울 속에 방황하는 지식인의 퇴폐적인 연애를 비판하면서 이들의 연애가 “건전하고 명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9) 『동아일보』, 1938. 1. 1

40) 『동아일보』, 1938. 12. 22 “종래의 취미오락의 성질을 띠었던 각종운동경기”를 “전투력증강에 필요한 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이후 “일본정신과 무사도를 선전하는”“경

상은 19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레크리에이션 운동을 통해 서서히 지퍼지기 시작했으며 1938년 조직적으로 제국의 곳곳을 훑은 후생 운동을 통해 본격화된다. 후생운동의 공식기관 <일본후생협회>가 설립되어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도시 문명의 현실적 문제들과 상징적 부정성을 건전신체론을 거점으로 비판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⁴¹⁾ 전시 조선에서 이루어진 오락 재편의 움직임과 건전신체의 오락적 육성이라는 방침은 제국이 취한 이와 같은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시기 출판된 잡지의 목차 밑그림에 목도리를 휘날리며 스키를

자애 줄곧 소개되고 배낭을 맨 여행자의 사진이 “우리는 가고자네 이야기하며/하이킹. 이는 우리의 낙원”이라는 구절과 함께 박혀있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 이상한 풍경이 아니다. 하이킹과 같이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소박한 근거리 나들이는 일본의 후생운동이 해 마지 않았던 건전 신체 오락의 전형이었다.⁴²⁾ 조선에서 하이킹 관련 기사는 1930년 반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1937년 무렵부터 뚜렷하게 늘기 시작하여 1940년에 이르러 지 줄곧 출현한다. 일상에서 ‘즐기면서’ 정신을 맑게 하고 신체를 단련하자는 것은 가드러운 생체 정치의 주장이다. “과격한 운동을하면 도리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도화스프-츠로는 기회있는대로 교외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외로 나가서 자기 몸에 적운동을하고 도라오면 심신도 상쾌해지고 몸에 펍 유리하다고 믿읍니다”⁴³⁾라는 권고는 한 과정에서 내화된 것이다. 1940년 피서지의 화려한 별장을 배경으로 도시적, 정신적 폐”의 상을 그려낸 김남천의 『낭비』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개되던 건전오락 문화 정역상을 묘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정책 논리에 구멍이 나는 실상을 드러내 보이이기도 하다. 제국의 요청에 의해 병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전시의 철저한 절약과 다양한 층위의 ‘전시윤리’ 준수가 강력하게 요구되던 상황에서 조선인의 몇 퍼가 이와 같은 부드러운 신체단련을 향유할 수 있었는지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 없다. 그러나 이 통계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추천하는 유흥을 통해 배적인 신체 이데올로기를 흡수시키는 제국의 전시 논리에 대한 파악이다. 전시기 조담론층을 채우고 있는 오락에의 권유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 배면을 봐야 하는는 여기에 있다.

오락의 금지라기보다는 이중 전략을 통한 선택적 재편. 그리고 유흥의 금기화라는 장려를 통한 은근한 감각-신체 조율. 이처럼, 주체가 인지 가능한 강도의 억압이나과는 다른 방식의, (건전)오락이라는 원거리 신체 조형술이 도시 문명의 “부박함”과 더한 측면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기제가 된 것은 논리상 쉽게 납득된다. 신체를 둘러싼

기의 국방화”와 관련된 경기 관전평이 제출된다. 인용은 이정순, 「第十二回 神宮競技觀」, 『조광』, 1941. 12

41) 다카오카 히로유키(高岡裕之)에 의하면,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체위향상운동 활성화된 레크리에이션 운동은 1938년 들어서면서 “후생운동”으로 발전한다. 후생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제 12회 올림픽의 동경개최 결정 그리고 세계레크리에이션 대회 계획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레크리에이션을 “후생운동”으로 번역하고 그 조직화에 나 된다. 일본 후생협회의 설립취지서에는 “국민의 체력, 덕성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을 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가 이용에 관한 국민지도, 불건전, 비경제적 오락의 교정, 을 연마하고 정조를 바르게 하기, 고유의 문화 유지발전, 국민친화 등이 거론된다. 후생은 1943년 경에 후퇴기를 맞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카오카 히로유키, 「總力戰と都市」, 史研究』415, 1997. 3 참고.

42) 위의 글 참고

43) 「민중보진 좌담회」, 『조광』, 1938. 8, 102쪽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1941년경까지 전시 문화, 전시 세계관의 핵심으로 거듭거듭 강조된 것이 바로 “명랑성”이었다.⁴⁴⁾ 전시 문화행정이 정책적으로 강조한 “명랑성”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제일주의, 국방제일주의”⁴⁵⁾로 전환하기 위한 내적 개조의 핵심 코드였다. 1941년 국민총력연맹에 문화부가 설치되고 적극적인 전시 문화 행정이 강화되면서 건전성에의 지향은 “명랑성”이라는 코드로 더 공허하게 ‘명랑해’진 것이다. 영화, 연극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 이 전시 명랑성의 이데올로기는 깊고 넓게 퍼지면서 각종 진흥책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한결같은 목적은 물론 “장기전일쭉룩 민중으로 하여금 명랑한 생활을 가지도록 건전한 오락을 보급 진흥”⁴⁶⁾시킨다는 것이었다. “오락은 다만 그 민중의 심지를 열게 하는것보다는 그로 인하여 능률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건실한 기풍을 조장하지않으면 안된다 (.....) 그러므로 오락은 반드시 강건질실한 국민적기풍을 양성하고 이로써 인생의 쾌활을 알게 되고 이 발발한 활기는 생산확충, 국가에 대한 봉공등을 필수적조건으로 들지 않을 수 없다 (.....) 인생을 슬픔과 탄식으로써 살것이 아니라 노래와 우슴으로 살것이라는 인생관을 갖어”⁴⁷⁾야 한다는 명랑국가의 논리는 영화, 연극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 깊고 넓게 퍼진다.

이 전시 명랑성의 이데올로기가 신체 조형술과 접합되는 순간 재발굴되기에 이른 것이 바로 건전-명랑-신체-오락의 종합 표상인 “농촌오락”=“향토오락”=“전통오락”이다. 이와 같은 ‘오락의 재발견’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回顧하건데 朝鮮의 郷土娛樂은 그간 공연한 迂廻를 하여섰다. 朝鮮의 그 지방 그 지방이 각각 가지고 오던 모든 淡淡하고 溫樸 명랑한 娛樂과 歌謠는 舊識이라는 애매한 일함으로 모조리 排斥을 당하고 대신으로 이상야릇한 짓과 怪狀망측하고 불건전한 留聲機 소리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農夫는 광이와 소를 버리고 農村을 떠나고 바다에서 도라오면 漁豐舞踊으로 떼을 魚符는 그만 酒*으로 다라나서 문자 그대로 불건전한 쾌락을 구해온 것이 최근의 현상이었다 ⁴⁸⁾

농촌오락=향토오락의 발굴은 근대 도시(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담고 있었다. 화류병이나 결핵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원인 젊은 층을 잠식해 들어가는 데카당한 도시 문명의 상징으로 담론화 되었듯이, 모든 불건전과 질병의 근원인 도시 혹은 도시적 신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맥락에서 농촌오락=향토오락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으로 개진되었고 관련 담론과 정책도 집중적으로 생산해냈다. 향토애의 진작과 농민의 농촌 이탈 방지도 함께 꾀했던 향토오락 진흥책은 대동아공영의 ‘동양으로의 회귀’ 노선과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프로그램은 놀면서 만들어지는 생활형 ‘동양’적 신체 병기 기획의 최종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제국의 전시 연성 우생학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농촌오락의 ‘재발견’, ‘재발굴’은 “농민들의 생활에 율*를 주고 율쾌를 주게 되어 그들의 생활에 활기를 넣게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은 저절로 그들의 건체운동(體健運動)도 된다”⁴⁹⁾는 근거 하에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신체 조형술의 하나로 자리매김된다. 전체적으로

45) 계광순, 「총독부고등관 제씨가 전시하 조선민중에 전하는 서」, 『삼천리』, 1941. 4,

46) 위의 글, 31쪽

47) 유광열, 「건실한 오락의 건설」, 『조광』, 1941.3.

48) 송석하, 「농촌오락」, 『삼천리』, 1941. 4, 227쪽

49) 손진태, 「전통오락진흥문제」, 『삼천리』, 1941.4 , 221쪽

왔을 때 대대적인 민속의 호출이 당시 조선을 휩쓸고 있었는데 이러한 동시다발적 민속화 바람 속에서 연성 우생학 역시 새로운 정향점을 찾아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요즘와서 동양문화의 재음미 재검토의 말이 나게 되어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리자는 문제가 오르게 됐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특히 “체위향상과 좋은 민속을 살리⁵⁰⁾”기 위해 열린 좌담회는 이 시기 신체 담론의 심층논리를 고스란히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토오락 정책과 발굴에 대한 논의들은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출현하는 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씨름은 “체육적 가치”가 큰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전신운동이 되며 정신통일이 되는 것과 승부를 빨리 내게 되므로 근육의 마비성이 없는 것과 운동장소가 대개는 공기와 일광이 좋은 들이나 천변이나 강변이므로 건강상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장소의 설비와 준비에 돈이 특별히 들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문제가 붙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 민중의 체육향상⁵¹⁾에 최적인 놀이라는 것이다.

4. 나오며

전시 연성 우생학이 제공, 선전한 오락적 신체단련의 환타지는 이미 일본의 모형 실험 국가였던 “스포츠 제국” 만주국에서 누차 실험되고 있었고 중일전쟁기에는 보다 강화된 기획에 따라 더 철두철미하게 실험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⁵²⁾ 각종 레크리에이션 정책, 체육 대회 그리고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신체 정치는 15년간 그 군사적 행진을 계속해 왔다. 조선의 경우 전시 신체 정치의 변용 과정은 1938년 지원병제 실시와 1942년 징병제 실시라는 현실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의 저열한 체위 수준은 끊임없이 지적, 점검되었으며 특히나 더 저열한 존재들은 존재 자체가 위협스러운 것으로 특화되곤 했다. 이와 더불어 갖가지 근절, 향상 대책이 제안되었다. 연성 우생학의 생체 정치는 경성 우생학의 폭력성이나 중간 지대 우생기술의 필요불가결성이라는 총위로부터 벗어나 유희적 문화정치의 형태로 변신하여 사망률과 질병에 허덕이는 피식민 주체를 ‘초대’하였다. 그런 점에서 신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시 연성 우생학의 문화 정치를 해명하는 일은 총동원의 은폐된 논리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나아가 비참한 피식민 지대를 채우고 있던 억압적인 잉여, 그로테스크한 향유와 취미의 내막을 밝히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경성 우생학의 폭력과 연성 우생학의 회유가 강화된 전시 총동원기에 쓰여진 소설 가운데는 오락을 통한 건강한 신체의 단련을 둘러싼 상상력에 민감한 작품들이 있다. 식민지 도

50) 「조선무예와 경기를 말하는 좌담회」, 『조광』, 1941.4, 294쪽

54) 이극로, 「씨름은 체육적 예술」, 『삼천리』, 1941.4, 226쪽. 그밖에 운동효과를 가진 민속놀이로 윷놀이, 널뛰기, 그네, 줄다리기, 석전, 편싸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전통향토 놀이 가운데서도 권할 만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언급, 놀이의 특징이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많다.

55) 국가 정책과 건전-집단 스포츠의 분리불가능한 결합은 이미 만주국 건설기에 강력하게

한, *Yokohama* : 한국문화연구원, 2013. 1. 2. *Manchukuo to Japan, Imitating the Octobers: The legacy of the Disfiguring State from South Korea*, <http://japanicon.org/>; 山口男, 『朝鮮の昭和史』, 岩波書店, 1997. 1. 2. *朝鮮의 근현대사*, 이 세에서 인용함; 山口男, 『近代朝鮮の政治と文化』, 岩波書店, 1997. 1. 2.

시 지식인의 신체성은 당시의 지배적인 건전-명량-역동적 신체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신경 쇠약” 직전의 어떤 것으로 상상되곤 했다⁵³⁾. “하얀제타에 노란스카-트가 목덜미에서 흔들거리는 약간커-큰 머리털과 함께 가벼운 근히의눈은 핑퐁알을 뚫으며 셋별처럼 빛난다(.....) 이 남매가 육체로써 비저주는 향기로웁고 뜨거운 미감이란 이렇게, 아트리에속에 셋이 마조 앉았을뿐으로 내몸마디마디에 안옥한 히열을 갖어다준다”라든가, “건강을 도모하세요(.....) 왜 좀더 건강스런 향락을 설계하시지 않으십니까 여행을 하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흡수하고 식욕의 향진을 꾀하여서 제 혈액을 빼앗으세요”라는 식의 상상력은,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김남천의 소설들과 함께, 전시 우생학의 문화 현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논리와 길항, 교섭하면서 배출된 것이다.

소설적 상상력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문화 이데올로기가 대중을 향해 작동할 때에는 매끄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점이나 ‘완벽한’ 착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문화화된, 보다 특수하게는 오락화된 식민지 우생학의 변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취향의 덮개를 쓴 지배 논리가 어떠한 반작용이나 반동을 불러일으키면서 관철 혹은 변모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⁵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다루었던 하이킹이라는 전시 여행 문화의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규율성이 이를 종종 데이트나 사적 놀이의 기회로 전유하곤 했던 동시대 주체들의 어떤 실제적인 유희성과 늘 부딪치며 공존했을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하이킹 코스”에 대한 소개와 “명량히 우슬 준비를 미리 하고 가시는게 도덕상으로든지 위생상으로든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⁵⁵⁾라는 권고가 공존하는 복잡한 삶의 현장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묻는 일은 차후의 또다른 작업으로 연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더불어 식민지 시기의 ‘오락정책’이 해방 이후 “국민국가” 건설기에 어떤 식으로 전환되었는가라는, 보다 통시적이고 연속적인 시야를 요구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건전성에 대한 강조, 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비판은 해방 후 줄곧 나타난다. 이 시기 문화정책으로서의 오락정책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으나, 대중적 오락과 쾌락의 감수성의 ‘관리’, ‘통제’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⁵⁶⁾ 국민국가 건설기에 문화‘정책’이나 문화전망은 주로 출판, 번역, 박물관 등과 같은

53) 이 시기에 특히 도시생활자나 지식계급은 신경 쇠약 발생률이 높은 집단으로 거론되곤 했다. 이들의 과도한 고민과 방황, 정신적-신체적 유약성, 운동 부족 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5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배문화의 정책성과 그것의 수용자-반응자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한 논문으로,, 권명아, 「생활양식과 파시즘의 문제: 식민지와 그 이후」(『『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05. 5. 20) 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전시 총동원의 파시즘과 일상공간의 다층적인 마찰 계기를 일상사 연구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있는데, 동의나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지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정체성 정치와 욕망의 지점을 드러내 보인다.

55) 이서구, 「애인 다리고 갈 사랑의 ‘하이킹 코스’」, 『삼천리』, 1936. 6, 98쪽. 현재 하이킹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급은 당시 문헌에서 나오지만 하이킹 ‘수행자’ 혹은 ‘향유자’와 관련된 통계나 실증적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근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연구로는 손환, 「일제하 한국 근대스포츠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42권 4호, 2003

56) 1960-70년대 대중음악 분야에서의 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신현준, 『한국팝의 고고학 1970』, 한길아트, 2005; 그 외 언론검열 영역에 대해서는 김동해, 「언론자유와 음란에 관한

계몽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오락, 향유, 취향의 영역은 일종의 ‘방입’ 상태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시는 미군정과 함께 들어온 대중 오락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하는 도시, 변하는 사람들, 변하는 시장.....에 대한 풍속 보고적 단신들은 해방 후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대중적 감수성 그리고 향유의 풍경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1930년대에는 건전하고 초근대적이며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위로서 여겨졌던 ‘댄스홀’이 1945년 이후에는 퇴폐와 타락의 상징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달리 상상된 댄스홀이라는 곳에서, 댄스하던 대중들은 실제로 무엇을

제39면이다.